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사회적 혼란 야기할 가능성”

이희완 차관, 기자간담회에서 우려 표명
“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기준 모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수도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25일 국회 정부위원회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안과 관련,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

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 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 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보

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취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2조의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역설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 23일 민주유공자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입장문을 내고 “민주화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 그 사건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보훈부는 국회에서 그 인정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무 기자

천안함 찾은 국방대 교육생들 ‘안보’ 중요성 되새겼다

240여 명 해군2함대·지작사 등 방문
국가관·역사관 확립, 안보 의식 고취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 240여 명이 안보기관을 방문해 국가관을 확립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했다.

국방대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안보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육·해·공군,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주요 안보기관 현장학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개 조로 나눠 진행된 이번 현장학습에는 육·해·공군·해병대 대령급 장교 75명과 국·과장급 공무원 75명, 공공기관 임원 68명, 이라크의 사하드 육군준장 등 장성 3명을 포함한 16개국 16명의 외국군 장교가 함께했다.

현장학습은 민·관·군에서 온 안보과정 학생들의 국가안보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국가관과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2함대를 방문한 교육생들은 서해 수호관 등을 견학하고,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헌화했다. 특히 서해수호관의 제1·2연평해전실에서는 북한군에 압도적 피해를



국방대 안보과정 교육생들이 해군2함대를 방문해 피격된 천안함 허부를 견학하고 있다. 국방대 제공

준 우리 군의 뛰어난 전투 능력을 확인했다. 또한 피격된 천안함의 선체를 자세히 살펴보고 추모비를 참배하며 먼저 간 전우

들을 추모했다.

교육생 박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현장학습을 통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군 장병과 우리 군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교육생들은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연합사에서는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각 기관의 헌신적 근무 현장을 확인했다.

교육생 황인수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은 “국민이 편안하게 지내는 중에도 우리 군이 전쟁의 위협을 잊지 않고 안불망위(安不忘危)하며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학습을 추진한 이춘주 안전보장대 학원장은 “안보기관 현장학습은 민·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던 군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시사각각 변하는 민감한 안보 상황에 군이 어떻게 긴밀히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한 뜻깊은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아미 기자

엘렌실라 쓰다 더 어려워지실라

와몰단독 10% 할인

국군복지단가 8,900원

5월한정! 지금이 기회! 와몰에서 프리스티지 리페어크림 5개입 구성 10% 절찬 할인 중!

#가정의달효도템 #선물고민해결 #슬로우에이징 #고영양80%

엘렌실라 프리스티지 리페어크림(50g)

피부의 윤기와 생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도 99.9% 금 함유



본 제품은 국군복지단 충성마트 & 인터넷쇼핑몰(WA-MALL)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4년연속 수상 소비자 선택 /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ELESILIA